

## 질병청,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권고

- 코로나19 유행 대응방안 논의 위해 학계·의료계 전문가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 (감염 예방 수칙)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마련
  - (일상생활) 손씻기, 환기 및 기침예절 등 기본 예방 수칙 준수,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
  - (코로나19 감염시)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만남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 등도 병가 등을 제공
  - (고위험군)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대규모 인원이 실내에서 모이는 행사 등은 참여 자제
  -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종사자·보호자·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
- (유행현황 및 분석) 6월 말부터 코로나19 입원환자 지속 증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단, 현재 변이 비중이 높은 KP.3는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하여 중증도와 치명률에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
- (치료제 공급 및 처방) 금주부터 순차적으로 추가확보 치료제 공급 예정
  - 의료진에게는 고위험군 위주로 치료제가 처방될 수 있도록 60세 미만 처방기준 준수 협조 당부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준 : 보도참고자료 6p 참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8월 14일(수) 오후 6시, 정부와 학계·의료계 전문가 합동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응 상황과 감염 예방 수칙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민관협의체는 감염·진단·호흡기·응급·예방 등 관련 학계 전문가와 의료계 단체가 참여하며, 정부 부처와 함께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공유하고, 감염 예방 수칙, 치료제 확보·제공, 예방접종 계획 및 응급실 코로나19 환자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코로나19 민관협의체 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24.8.14.(수) 18:00 ~ 19:30, 질병관리청 회의실 (화상연결)
- ▶ (주요논의 안건)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분석,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및 제공,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응급실 코로나19 환자 현황 등
- ▶ (참석) 질병관리청장(주재), 학계 및 의료계 전문가, 질병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 감염병 정책국장,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의료안전예방국장, 진단분석국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존에 배포되던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과는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 사항으로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추가 전파 예방이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만남 또는 외출 자제를 권고한다. 아울러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해 줄 것을 권고한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므로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밀폐된 실내의 대규모 행사 등은 피할 것을 권고한다.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종사자·보호자 및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질병관리청은 이번 코로나19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관계부처에 배포하고, 소속기관 등의 지침 준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 환기 부족과 휴가기간 사람 간 접촉 증가 등으로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들께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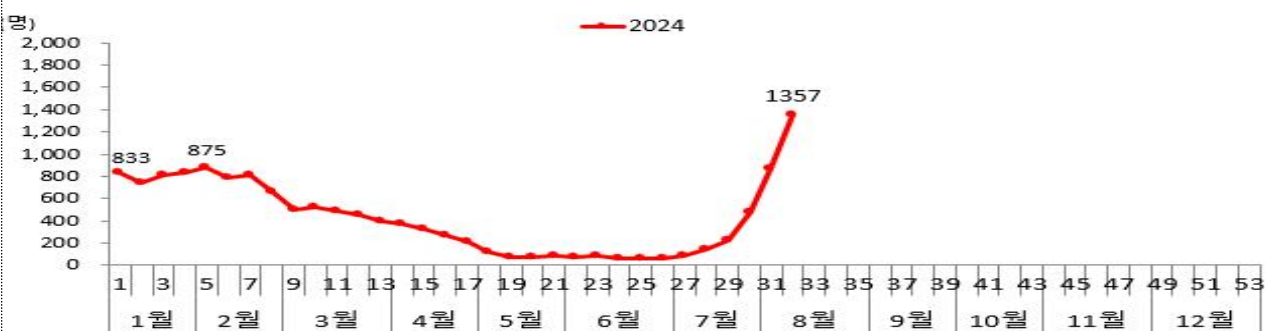
### 【코로나19 유행 동향】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 전환 이후 전국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 중이다.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8월 2주차 입원환자 수(1,357명, 잠정)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최근 4주 입원환자 수(명) : (7.3주) 226 → (7.4주) 472 → (8.1주) 869 → (8.2주(잠정)) 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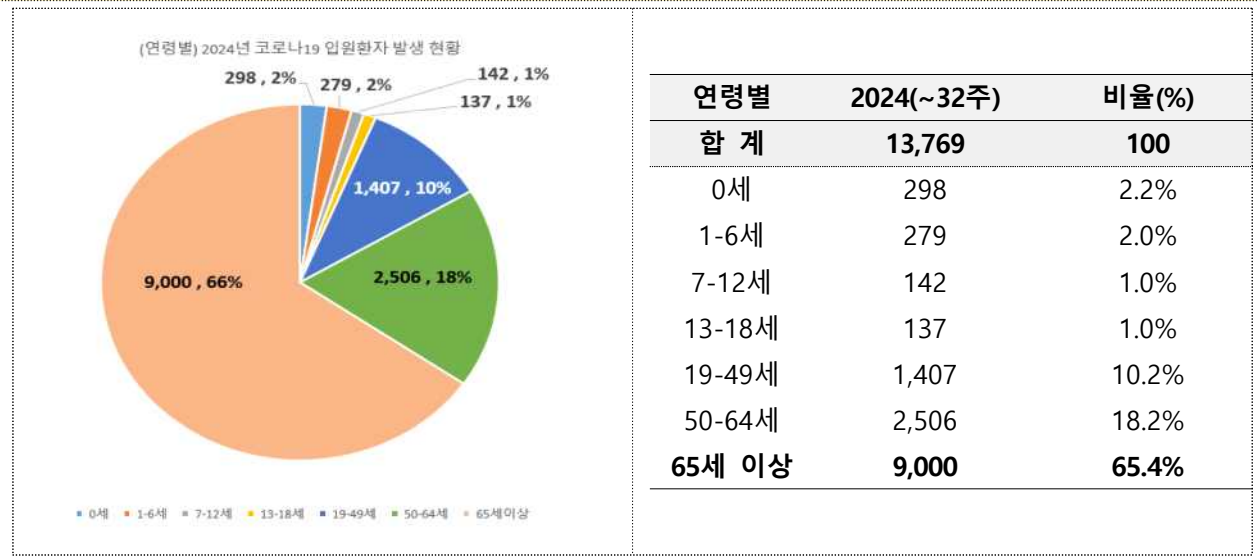
[ (2024년(1.1~8.10), 주별)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 추이 ]



\* '24.1.1.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 의료기관(220개소)에서 매주 급성호흡기감염증(ARI) 입원환자 수를 신고한 잠정 통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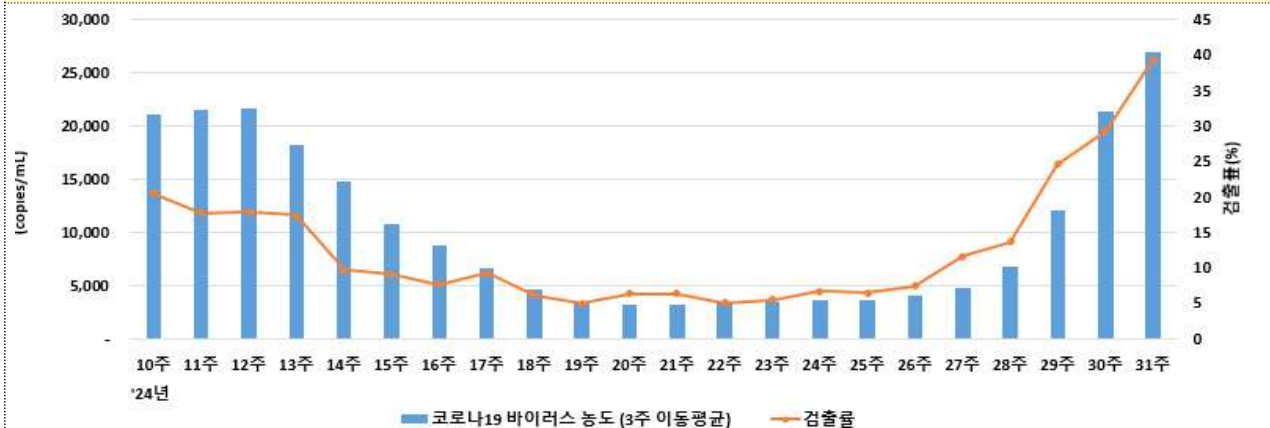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13,769명)의 65.4%(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64세가 18.2%(2,506명), 19~49세가 10.2%(1,407명)의 순이었다.

[ (2024년(1.1.~8.10.), 연령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추이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위한 하수 감시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6월 말(26주)부터 6주 연속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및 하수감시 현황 ('24년 10주 ~ 31주) ]



입원환자 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8월 1주 기준 검출률이 39.2%로 4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표본감시(K-RISS) 병원체 검출률:  
(7.2주) 13.6% → (7.3주) 24.6% → (7.4주) 29.2% → (8.1주) 39.2%

코로나19의 오미크론 세부계통 점유율은 오미크론 JN.1 계열의 세부계통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7월 기준 KP.3의 점유율이 45.5%(6월대비 + 33.4%p)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점유율 (24년 7월 기준) ]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4월	5월	6월	7월
KP.3	0.3	2.5	12.1	45.5
KP.2	1.3	5.9	5.7	15.8
JN.1*	83.1	67.2	59.3	14.6
LB.1	0.1	1.3	2.5	5.4
JN.1.16	9	17.4	19.1	10.4
XDQ	3.7	2.8	0	0
기타	2.5	2.9	1.3	8.3

\* JN.1은 JN.1.16, KP.2, KP.3, LB.1을 제외한 JN.1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 질병관리청은 8월 현재 주요 모니터링 변이로 JN.1, KP.3, KP.2, JN.1.16, LB.1 감시 중

※ 오미크론 KP.3

- ▷ JN.1 유래의 KP.3(JN.1.11.1.3)는 '24.2월 미국 첫 검출 후, 52개국에서 29,804건 확인(GISAID, 8.8)
- ▷ 세계보건기구에서 모니터링 변이로 지정하여 감시하는 KP.3는 JN.1 대비 S 단백질에 3개의 추가 변이를 지니고 있어 **면역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나, 현재까지 중증도 증가 관련 보고는 없음(Lancet 6.27, WHO 7.15.)**

KP.3는 전 세계적인 증가(6월: 37.1% → 7월: 48.5%) 추세(WHO GISAID, 8.8)를 보여, 세계보건기구도 모니터링 변이\*로 감시 중이며 지금까지 **면역회피능의 소폭 증가는 확인되나, 중증도가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변이의 유행상황과 변이의 전파력, 중증도 등 특성을 반영하여, 기타변이(VOI), 모니터링 변이(VUM)를 선정하여 관리 중

또한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19의 KP.3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진행된 유럽에서도(ECDC, 8.9.) KP.3 변이가 최근 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지만 중증도 및 백신효과에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계획】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23년도 여름철의 사용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치료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하게 추가구매를 추진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주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확보한 치료제가 공급되기 시작하며, 8월 마지막 주(8.25.~8.31.)까지는 전체 담당약국에 여유분을 고려한 치료제 물량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치료제 이용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치료제가 꼭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처방기준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은 60세 이상에서 증가하므로 고령자를 집중 보호할 수 있도록 60세 미만 환자의 경우 환자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처방하기를 권고하였다.

###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준 >

치료제명	처방기준
팍스로비드 (경·중등증)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2) 만 12세~59세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 하나 이상 보유자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 <sup>2</sup> 이상, ▲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라게브리오 (경·중등증)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2) 만 18세~59세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 하나 이상 보유자

### < 연령별 코로나19 치명률 >

(단위: %, 출처:주간 건강과 질병, '24.5.16)

구분		전 기간('20.1월~'23.8월)	2023년(1월~8월)
표준화치명률		0.10	0.05
60세 미만	50세 미만	≤ 0.01	≤ 0.01
	50~59세	0.03	0.02
60세 이상	60~69세	0.11	0.05
	70~79세	0.40	0.16
	≥ 80세	1.75	0.73

## 【민관협의체 참석 전문가 주요 제언】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엇보다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질병청이 치료제를 조속히 추가 확보하여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병상에 여유가 있더라도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보다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전문가분들이 주신 의견을 정부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민관협의체를 통해 학계와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3-719-9050)
		담당자	사무관	박장호	(043-719-9051)
담당 부서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양진선	(043-719-7140)
담당 부서	감염병정책국 호흡기감염병대응TF	책임자	팀 장	김동근	(043-719-7150)
		담당자	연구관	현정희	(043-719-7141)
		담당자	연구관	서순려	(043-719-7195)
담당 부서	코로나19대책반 치료제관리팀	책임자	팀 장	박지영	(043-719-7810)
		담당자	사무관	윤다솔	(043-719-9152)
담당 부서	진단분석국 진단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재선	(043-719-7840)
		담당자	연구관	이현정	(043-719-7844)
담당 부서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은진	(043-719-8140)
		담당자	연구관	이지은	(043-719-8220)
담당 부서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성순	(043-719-8140)
		담당자	주무관	연규진	(043-719-8220)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과 장	고재영	(043-719-7780)
		담당자	서기관	구용민	(043-719-7793)

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정부 129 / www.e-gen.or.kr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

- 코로나19는 감염력이 높은 감염병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나, 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치명률) 60~69세 0.11%, 70~79세 0.4%, 80세 이상 1.75%

**□ 일상생활에서,**

- ❶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 ❷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주세요.
- ❸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❹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세요.
- ❺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 ❶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 ❷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은 자제해주세요.
- 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❹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해주세요.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 ❶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❷ 밀폐된 실내에서 대규모 사람이 모이는 장소·행사 등은 피하세요.
- 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원을 신속하게 방문해주세요.

☐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다음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❶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❷ 보호자 및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❸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주세요.
- ❹ 코로나19에 진단되었거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해주세요.